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몽골식약화 방지를 위한 은송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대림절 제3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크신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몸이 움츠러들고, 온기 없는 세상살이에 마음마저 움츠러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따스한 품을 더 크게 열어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십시오. 우리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 주십시오. 우리도 주님의 따스한 사랑 가슴에 품고 몸과 마음이 얼어붙은 한 영혼을 꼭 안아주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대림절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더욱 순수하고 진실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구유를 가득 채우고 있던 온갖 감정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치우고 싶습니다. 주님을 모실 깨끗하고 편안한 자리 하나 마련하고 싶습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남루한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58:11,12	인도자
♠ 교 독 문	117. 구주 강림(3)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장성호 선생 II. 김인걸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102. 영원한 문아 열려라	다함께
성경봉독	I. 마11:2-6	손여진 학생
	II. 계10:8-11	박석희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손성현전도사
	II. 말씀의 맛	김기석 목사

- 찬 양 546(통399).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에 서 다함께
-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사십시오. 괴롭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면 큰 힘을 덧입게 됩니다.

다 함 께 : 아멘.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고, 들었던 좋은 말도 금세 잊어버리고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곱씹으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의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당회	시편묵상 : 손성현 전도사
	기도 : 이명희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오재환 선생	김제우 학생
	김기석 목사	김재흥 목사	이형숙 권사

12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용진 정한구 최숙화 박효선 홍복선
	헌금위원	김인걸 정영선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두려움의 원천

보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우리들 마음의 갈망을 간직하는 데 방해하는 끔찍한 공포의 원천은 무엇인가?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과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한 두려움, 실패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의 원천은 못하고 더러운 것에 대한 공포와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 경험했던 공포에서 찾을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누려야 하고, 또 그런 사랑은 착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느끼게 만든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완벽해야 하고, 부모들의 규칙에 부응해야 비로소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만이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뿐 개인의 유일한 가치가 내재적인 개성이란 걸 인정하지 않는다.

『인류의 길』을 쓴 유태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 개개인과 함께 보면, 그 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롭고 유일한 것이 있다. ... 각자에게 성장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자질이다.”

그러나 만약 아이들이 부모의 규칙들에 맞추게 되면, 어떻게 아이들은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느끼겠는가? 자신의 유일한 재능과 한계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때, 또 인정받고 존경 받을 때 아이들은 나중에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공포와 편견처럼 사랑과 존경도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유산이다. 책임에 대한 승인을 얻는 행동에서부터 우리와 다른 이들에게 개방적인 모습으로 달라져 가는 변화는 의식의 전환을 뜻한다. 그것은 마치 겹질이 깨어지면서 점차 참사람이 빠져나오는 것과 같다.

우리가 서로 불신하는 이유, 서로 배타적인 집단 속에서 무리끼리만 함께 움직이려는 주요한 원인은, 우리 대부분이 가장 불완전한 방식으로만 사랑을 체험하려고 하는 경향 때문이다.

강함과 약함을 모두 가진 자신이 한 인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개방하고 그들의 비밀을 존중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되기 시작하며, 포용과 우정과 형제애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가 타인의 유일성을 더 의식하게 되면 보편적인 인간애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나이와 성, 인종, 문화, 종교, 한계, 장애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똑같다. 우리 모두는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지니고 있어 사랑받고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능력을 개발하고 더 큰 자유를 향해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보편적인 인간성을 지니고,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엘리트주의와 우월감의 감정 뒤로 숨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트주의와 우월감이 만들어내는 편견과 판단과 경멸의 장벽 뒤로 계속 숨을 것이다.

각각의 인간 존재는 강하든 약하든 간에 인류 안으로 들어온 중요한 존재이다. 우리의 아름다운 우주 속에는 태양과 별들이 있고, 자신들의 아름다움과 치유 능력,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지녔기에 귀한 식물과 동물들도 수없이 많다. 또한 우리 육체의 각 부분은 중요하고, 총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사람 역시 크든 작든 간에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우리가 서로를 실제로 알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사물은 변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서로를 권력과 학식의 개념에 따라, 그룹 정체성에 따라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인격적이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만남에 따라 판단한다.

우리는 배척에서 포용으로, 공포에서 신뢰로, 폐쇄에서 개방으로, 판단과 편견에서 용서와 이해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것은 마음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서로를 인류의 형제와 자매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며, 더 이상 공포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다만 마음으로 지배되게 된다.

시장 사람들

김형호

하루의 밥거리를 위하여
상인들은 바쁜 손놀림으로
장작불을 피우고
새벽 찬 공기를 덥히며
서로의 아침을 격려하는 새벽
구부정 할매도
구부정 아저씨도

비닐포장으로 잘 동여매었다.
바쁜 손길을 주고받는다.
손수레의 팔 물건들을 정리하고
호호 입김을 불며
안녕하슈!

할머니는
총각! 여그 당근 한 다발하고
배추 다섯 단만 가져와!
시장에 아침을 연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방문성	박혜경	김준우	우순덕	김근종	정옥영	김용길
최영혜	김정길	최숙화	박홍재	김희진	박영희	배상순	권호진	방민
백묘현	손성현	안경아	안정숙	윤미경	윤수진	이한림	김명희	정한구
왕영순	홍순구	안홍숙	방준	원인해	김종락	박영신	이우원	옥귀희
박소진	김수진							

월정헌금:

고속이	김미순	김용태	박정숙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문금석
안길상	이형숙	윤성종	김윤정	이갑재	이인웅	오송경	이정은	전영자
정두리	이광섭	최윤희	박상규	이증자	김창경	박인혁	김지윤	장석원
남은총	박은정	하정석	이명희	김명순	이교영	김영순	이현순	

감사헌금:

이유일	방극숙	조항범	김남홍	선우영	문희창	박범희	박미영	박창운
허정윤	박옥순	문복순	무명					

녹색꿈 헌금:

임창선 전 용

생일감사헌금:

조병무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조순덕	연합속회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배부례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이은옥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문영혜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안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김정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강순배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이정은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심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임창선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성서주일** :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 **당회** : 2010년 당회가 오후 2시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당회원은 입교인 전원입니다.
3. **연합속회** : 이번 주 속회는 금요일(17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연합으로 모입니다. 예배인도 : 목회실 식사담당 : 속장인도자
4. **설거지 봉사 신청** : 2011년 설거지 봉사자 신청을 받습니다.
5. **전화번호 수정** : 전화번호가 바뀐 분은 '수정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새교우 환영회** : 다음 주일(19일) 2부 예배 후에 2010년 하반기 새교우 환영회가 중고등부실에서 열립니다.
7. **초록가게** : 초록가게에서 2011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하길 원하시는 분은 초록가게에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초록가게에 물품을 기증할 때에는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기증하시기 바랍니다.
8. **신앙실천** : 사람의 온정이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먼 곳에 떨어져 지내는 이들에게 편지나 선물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시온 속 (다음 주 : 시온 속)

* 설거지 봉사 : 전충길 남창모 정희은 (다음 주 : 이건식 김세진 김기성)

* 새교우 : 장동훈(5남) 정은선(8여) 정수형(8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